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5월 24일(주일) 제1296호



NGO 더멋진세상은 르완다에서 현지 교단과 협력해 738가정에 식료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긴급구호 선교지를 돕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 선교지 코로나19 긴급구호 총력
44개국 선교사 60가정, 주민에 2억 상당 구호물품 전달
5월 비전헌금을 통해 추가로 선교지 지원예정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이 선교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현지지역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지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의료용품 등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귀국지원과 자가격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5월 22일 기준) 44개국 선교사 60가정과 선교지 주민들에게 2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제3세계인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선교지 주민들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온두라스는 지난 3월 10일 발령된 통행금지 명령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동규 장로는

“온두라스 정부관계자들이 ‘손을 쓸 수 없다’고 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르완다에서 장애인 아동 3명을 키우는 콘솔(UWABABYEYI Console)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이틀에 한 끼를 먹을 만큼 궁핍한 생활을 이어오다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이 현지 교단과 함께 실시한 긴급구호를 받으면서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콘솔씨는 “저희는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구호를 받게 됐다”면서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실시한 긴급구호는 5월 한 달 분량의 식료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곧 추가적인 지원이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 선교

기관들은 기존 사역에 투입되는 인원과 재원을 긴급구호로 전환해서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주일(17일)에는 추가적인 긴급구호에 사용하기 위해 5월 비전헌금을 봉헌했다. 현지 선교사들과 유관기관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발빠르게 하고 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와 현지 지역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 사역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208
계좌: 하나은행 573-910018-31505
(입금시 생년월일 기재)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온누리교회가 6월부터 8월까지 ‘가스펠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인예배와 차세대 예배가 동일한 주제(One Point)로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 소그룹 나눔

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차세대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드러지면서 어려워진 신앙양육과 소그룹 나눔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됐다. 두란노에서

출판한 <가스펠프로젝트 신약1: 위대한 복음>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성인예배와 차세대 예배가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듣고, 각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소그룹 나눔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문의: 02-3215-3523

온누리 미래준비를 위한 순 간담회 진행상황

Q&A



Q. 2차 순예배 간담회와 질문서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A. 5월 둘째 주(11일 주간) 진행된 1차 간담회 설문지에는 13,000여 명 참여했고 이 중에 응답을 완료한 성도는 8천여 명입니다. 3천여 개 순을 중심으로 2~3만여 명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높은 참여이며, 이는 이번 간담회와 설문에 대한 성도님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설문서에 아직 응답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1차와 2차 설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지난번 응답하다 바쁜 일로 완결을 못했는데 아직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설문 기한인 5월 30일(토)까지 하시면 됩니다. 1차 설문은 <http://bitly.kr/O9ZHAfkvi>, 2차 설문은 <http://bitly.kr/IdK4GHKY0>로 들어와서 하시면 됩니다.

Q. 3천여 개 순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설문은 누가 분석하나요?

A. 모여진 간담회 자료와 의견들은 객관적인 취합 및 분석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Q. 설문지 분석은 얼마나 걸리며,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현재 분석에 착수했으며, 예상보다 높은 응답으로 인해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6월 말 경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Q. 웹세미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개최되나요?

A.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대상이며, 희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시기는 6월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세미나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Q. 이번 간담회와 웹세미나 결과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A. 1차적으로는 웹세미나 토론 주제 선정과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자료 분석과 당회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이 향후 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순예배 간담회 참여와 관심 뜨거웠다!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온누리교회가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미래 방향 정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예배 간담회는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작이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변화와 인식, 코로나 이후 성도 개인과 교회에 바라는 점 등을 교회가 겸허하게 수렴하기 위해 교회의 실패결과도 같은 순예배에서 성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었다.

순예배 간담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최규윤 순장(송파A공동체)은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인상 깊었다”고 했고, 박세혁 형제(여호수아공동체)는 “청년들의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교회가 성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각 장로(온누리미래위원회 위원장)는 “성도님들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온누리교회의 미래상을 잘 그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6월부터 입교 및 성인세례식 재개

6월부터 입교 및 성인세례식을 재개한다. 6월 세례식은 28일(주일)이다. 이날 입교 및 세례를 원하는 성도는 5월 31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목회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263

특별기획
코로나 이후 세계변화와 교회의 대응

교회, 빅데이터를 잡아라!

교회와 성도, 교회와 사회 간격 줄이는 도구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예배당에서 진행되던 예배와 양육을 온라인에서도 병행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할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했던 온라인 순모임, 기도회 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훈련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앞으로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신메뉴를 개발하려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방 이츠’ 같은 푸드테크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치킨 프랜차이즈보다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업체가 치킨에 대한 빅데이터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유튜브를 시청한 적 있다면 시청중인 영상과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추천해주는 ‘관련영상’을 보다가 시간가는 줄 모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관련영상 서비스 또한 유튜브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 두 사례가 단적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설명해주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교회도 그 시대를 적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교회는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선거, 사회분석, 소비자 파악, 스포츠, 경영,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글, 수치 같은 정형화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사진, 오디오, SNS, 인터넷 사용기록 같은 비정형화 데이터까지 수집하고 분석한다.

2003년 구글의 에릭 슈미츠 회장이 3천년 동안 지구상에 쌓인 문서를 모두 디지털화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용량이 약 5엑사바이트(1기가바이트 크기의 영화 약 50억 편 분량)였다. 2017년 5엑사바이트의 정보가 생성되는데 하루가 걸렸고, 2019년에는 1분이 걸렸다.

도미노피자, 자라, 스타벅스의 빅데이터 활용법

교회와 일반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회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피자 프랜차이즈 ‘도미노피자’, 스페인의 패션브랜드 ‘자라’, 미국의 카페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빅데이터와 IT 기술을 도입해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



한국 교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모두 합산하면 차고 넘치는 빅데이터가 있다.
바로 이 빅데이터를 잘만 활용한다면
탁월한 전도와 선교, 목회와 목양 도구가 될 것이다.

미노피자는 빅데이터와 IT 기술을 도입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미노피자의 성장은 뉴욕거래스에 상장된 도미노피자의 주가로 가늠할 수 있다. 2010년 1월 11달러 선에 거래되던 도미노피자의 현재 주가는 375달러(21일 기준)로 약 32배 성장했다.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평가받는 아마존은 같은 기간 동안 109달러에서 2,449달러로 약 22배 성장한 것을 비교해보면 도미노피자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일까? 손님의 취향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다음 클릭 한 번으로 집까지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 현재 도미노피자 본사의 직원 절반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경쟁사, 냉동피자 등 어떤 종류든지 피자 사진 6개를 업로드하면 피자 1판을 무료로 제공하는 ‘Points for pies’라는 서비스를 론칭할 만큼 도미노피자는 빅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스페인의 패스트패션브랜드 ‘자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날씨, 색상, 패턴, 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한 고객의 수요를 잡아냈다.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경쟁사들은 6~9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을 단 3주로 압축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RFID’라고 하는데 매장 직원들이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서 데이터화하고, 옷에 부착된 바코드는 고객들이 어떤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는지를 데이터화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스페인데이터센터’로 모여 분석된다. 이 과정을 통해 원가절감, 재고절감,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그 덕분에 자라의 재고 비율은 10%미만이다. 또한 자라는 동종업계에 비해 90%이상의 광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자라는 고객의 필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틀렸어도 다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에 수없이 많은 스타벅스를 보다보

면 공통적인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다 잘되네!”

잘 되는 이유가 있다. 모바일주문시스템 ‘사이렌오더’를 기반으로 구매이력, 매장정보, 입지 등을 수집해서 기존 매장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거리라도 새로운 매장을 내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장의 좌석의 크기와 숫자까지 빅데이터의 손아귀에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스타벅스코리아는 10여 동안 매출 7배, 영업이익 8배 성장했다.

빅데이터,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대형교회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온라인 예배, 양육, 화상 순모임이 한국 교회의 일상이 되었다. 온누리교회와 CGNTV가 운영하는 27개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만 무려 2만개가 넘는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모두 합산하면 차고 넘치는 빅데이터가 있다. 바로 이 빅데이터를 잘만 활용한다면 탁월한 전도와 선교, 목회와 목양 도구가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은혜, 통찰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도 오래전부터 데이터를 목회에 활용하고 있다. 설교, 양육, 강의를 끝내면 성도들의 반응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도 했고, 최근 온누리교회미래준비위원회에서 실시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순예배 간담회 결과도 외부전문기관이 분석한 다음 온누리교회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성도의 일상과 정보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성경 말씀, 설교, 양육, 봉사처 등을 제공하는 신앙생활도우미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어떨까? 성도들의 연령, 직업, 나이, 지역, 기도, 예배, QT, 봉사, 양육, 고충 등 신앙생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또 어떨까? 교회와 성도, 교회와 사회의 간격이 매우 줄어들 것이다. 개인 정보, 보안시스템, 신학적 논쟁 등 넘여야 할 산이 많겠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단어는 ‘비대면’ (untact)이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서로 대면하지 않는 원리가 세상의 중심 원리가 될 때 언제나 사람을 마주하여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신체접촉이 불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건강한 인격적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더러움에 점점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점점 분리되고, 상상과 현실 사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탈육신 시대와 신앙의 탈육신 현상

호주 물리신학교 선교학 교수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탈육신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탈육신 시대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리주의적인 이원론이 나타납니다. 신앙과 세상이 분리됩니다. 교회 안의 신앙으로 머무르게 되고, 신앙과 삶이 별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 제도로 분리되어서 교회 안의 문화로만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세상과 격리되고, 분리되고,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상관없는 것으로 분리되는 것을 ‘신앙의 탈육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위선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탈육신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규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규례에 따른 규칙입니다. 탈무드나 미드라쉬 같이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에 근거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분류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를 삼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눅 5:31~32).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병든 영혼을 고치는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주제로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몸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금식은 이미 금식의 규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공개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의 본래 모습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마음을 낮추게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육체를 자랑하고, 영혼을 더욱 교만하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탈육신화된 현상입니다. 영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도리어 육체를 위하여 사용되고, 겸손을 위해 제정된 제도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탈육신화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앙과 교회로서 살아가는 신앙은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자신의 몸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당 건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후반부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탈육신적인 시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 세상 속의 교회로 존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신앙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34~35절).

우리 내면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랑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연합된 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랑을 만난 기쁨, 신부가 신랑과 연합하는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정한 기간이 결혼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던 신랑이 나타났을 때 신부의 기쁨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신부가 기다리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늘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금식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기간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평상시보다 좋고, 많은 음식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금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금식은 다릅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때 금식합니다. 먹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금식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영혼이 풍성하기에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기쁨이 부족하거나 사라졌다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된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모든 환난과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신랑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이자 교회의 생명력이요, 능력입니다.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

둘째,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36절).

옷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전통은 헌

옷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새 옷과 같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탈육신화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외식적, 분리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전통은 헌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주의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헌 옷을 고치려고 새 옷을 기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전통은 세상과 분리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로 존재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질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주신 복음의 옷은 세상 속으로 침투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교회로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의 성직자, 사역자,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복음의 옷은 우리를 세상 속에 침투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 문화 속에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서신서에 나타난 모든 갈등은 복음이 유대 문화의 껍질을 벗고 온 인류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1천 년 이상 내려온 율법을 중심으로 만든 그들의 옷을 벗는 결정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끊임없이 내려야 할 결정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적,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으로 탈육신화된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고 본질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는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주의의 옷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옷은 어떤 시대, 민족, 문화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될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Pole2공동체

기독교 서적 소개하는 유튜브 ‘목북’

“IT계에 맥북이 있다면 기독교계에는 목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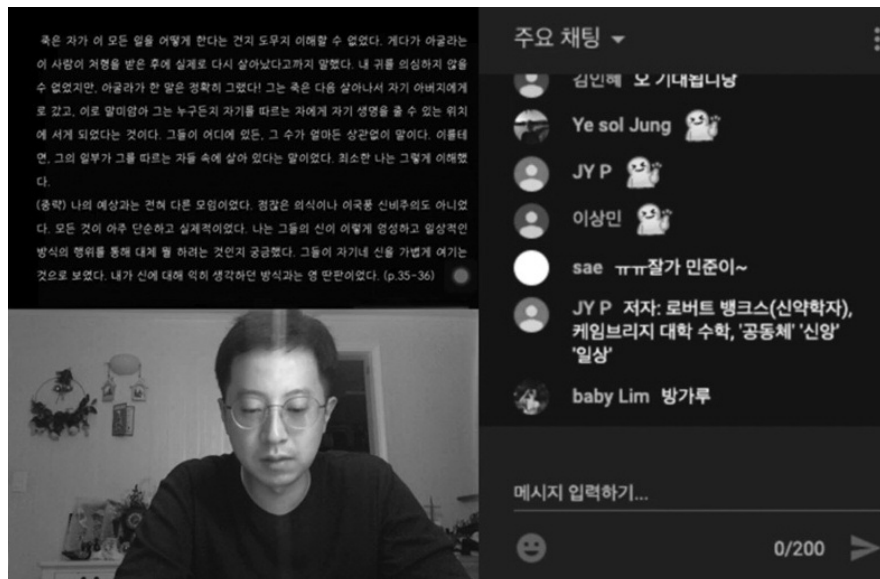
21세기는 미디어 홍수 시대다. 수많은 리뷰 영상이 있지만 정작 기독교 서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별로 없었다. Pole2공동체 정한호 목사님이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The reading pastor, 목북’ 유튜브를 시작하셨다(Pole2공동체 공식 유튜브).

첫 책은 <1세기 교회 예배이야기>다. 저자는 로버트 뱅크스로 신앙과 공동체, 일상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한 신학자다. 연구 분야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크리스천과 공동체를 마주하며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신학자인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픽션을 가미해 흥미를 유발한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세 포인트를 발췌해 소개한다.

첫째, 기독교 교리는 단순하고, 실제적이며,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다.

“좋은 종 됨을 사람을 섬길 기회로 여기고,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기면 자유인 되기를 주저하지 마라.”

바울 시대에는 교회 내 분란과 갈등이 많았지만 기준에 따라 의견을 모으고 점점을 찾아 가는 영적 질서가 존재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한호 목사(Pole2공동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독교 서적을 소개하고 있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영적인 질서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 가려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방인 눈에 비친 기도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모임이 어떻게 흘러 가야 하는지 구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주

인공은 “당연시 했던 것들이 신의 손길에서 온다”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며 우리의 신앙 그대로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은사란 무엇인가?’이다. 은혜 없이는 은사가 있을 수 없다. 흔히 우리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만 은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천적, 관계적인 부분도 은사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은사가 협력하여 성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때 공동체가 발전할 것이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전도, 더 나아가서 선교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첫 번째 목북이 끝이 난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 시간이 많은 요즘, 목북이 신앙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나갈 때 도전이 될 만한 메시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에서 목북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콘텐츠가 되기를 소망한다.

/ 박지예 자매(Pole2공동체)

여호수아공동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막막했던 것 같다. 연이어 수련회 취소, 아웃리치 전면 중단 등의 소식을 들었다. 공동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때 마주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심정이 많이 복잡했다. 솔직히 어려운 마음과 좌절감도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단절은 내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쁨보다는 슬픔을, 기대와 소망보다는 걱정과 원망이 더 많이 생기게 했다.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걸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등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 답답했다. 그리고 2개월이 흘렀다. 내 삶에 무엇이 바뀌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처소가 생겼다. 교회로 한정되었던 예배 공간이 내 방으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예배 시간에 맘껏 뛰며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넘치는 은혜가 내 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동체에서 시작한 온라인기도회와 홀리스타, 말씀읽기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었고, 그곳이 바로 예배처소가 되었다. 세상 속에 있는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매순간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보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하 교회처럼 살고 있던 내 자신이 드러났다.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본 어머니와 하나님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

회사에서 야근 중에 참여한 온라인기도회를 통해 회사와 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과 화평의 통로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나에게 사회적인 단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이자 길이 되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계속 교회 속으로만 들어갔던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선의 변화가 생겼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 것을 가진 채 안정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두렵지만 나아가는 것이다. 삶과 믿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당 주일예배가 재개되면서 자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다. 언제든 이러한 상황이 또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히 13:8)을 예배하는 것이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사 43:19)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기쁨의 가치가 있다(골 1:20). 이를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 윤순 형제(여호수아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한국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장철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요즘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비해 조금 늦게 확산되었지만, 현재는 가장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산타모니카는 LA카운티에 속해있는데, 캘리포니아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5~10배 많습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지역의 행정명령에 따라 3월 중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0명 이하 소규모 모임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서는 예배팀만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일 오전 10시 30분 함께 TV 앞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순원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고 계시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도 매주 공유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순모임도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유학생들은 미국과 한국에 맞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일상의 영상들을 모아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1회 이상 특별 프로그램(보이는 라디오, 스케치북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어르신들이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

등)을 편성해서 성도님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사연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림도 그려보고 모빌도 만들어서 장식할 수 있는 영상 프로그램도 편성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정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께 간식을 배달하기도 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기도 하며, 차세대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배달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 아쉬워하시는 점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주 지역 다른 온누리교회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911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911 기도는 '밤 9시, 매일, 1회 이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 자신의 삶

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성도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요원해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그렇지만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산타모니카 인근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한인 유학생을 섬기는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 대학들이 올해 가을 혹은 내년 초까지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기독청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교회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도 한국 온누리교회와 온 누리에서 사역하는 해외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정장철 목사(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일본 우에다 온누리교회

매일 손을 들어 기도하며...

신록이 물드는 산과 각양각색 피어나는 꽃들에 둘러싸인 우에다 온누리교회에서 한국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에다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카마타 미키 목사입니다.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본에도 퍼졌습니다. 그 기세가 4월 초순 절정에 달했을 때 하루 감염자가 700명을 넘는 적도 있었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지방도시인 이곳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감염자 수는 적습니다만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감염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높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지난 4월 16일 일본 전국에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7개 비전교회 중에서 우에다 온누리교회를 제외한 다른 6개 교회는 일본 대도시나 대도시에서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들 대도시에서는 감염자 수가 많아서 대부분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우에다 온누리교회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이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우에다 온누리교회는 안전한 예배환경을 위해 의자를 떨어뜨려 배치했다.

자 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에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2G폰을 쓰는 분도 있고, 인터넷 이용을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1인 가구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믿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순장들을 통해 이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리자 그 다음 주 예배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보다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4월부터 예배를 2회로 나누고, 의자 배치를 떨어뜨리거나 숫자를 줄였습니다. 평일 집회는 중단했고, 새벽기도회는 지속해서 열고 있

습니다. 매주 긴장하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우리의 모임을 불쌍히 여기고 안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미신자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가하고 있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성도도 생겨났습니다. 순원들의 결속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키려는 간절함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격려 메시지가 우에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에다 온누리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 교회, 우에다 지역, 일본이 지켜지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도 작은 마을 우에다에서 매일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 하카마타 미키 목사(우에다 온누리교회)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코로나19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과 전 세계에 코로나(COVID-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4년째 섬기고 있는 김창규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은 중국과 아시아, 유럽보다 코로나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 유입 및 확산방지 대책본부(5월 11일 기준)는 전체 누적 확진자 22만 1,344명, 모스크바 누적 확진자 11만 5,909명, 사망자 2,009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개 교회를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모스크바시의 정책으로 모든 사회적, 문화적, 영적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교회가 일시 폐쇄되어 벌써 두 달째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에 참여하다가 일방적인 예배 형식에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성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섬기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영상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김창규 선교사와 성도들.

얼굴을 보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감을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하며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지바이지즈니교회가 설립한 출판사에서 러시아어 <생명의 삶>이 출판되

고, 큐티사역이 러시아 전역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큐티를 통한 말씀묵상훈련이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원들이 함께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은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큐티 사역에 동참하지 않던 러시아 내 교회들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성도들의 영적생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큐티사역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저

희가 온라인으로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청년들은 매일 저녁 8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청년들도, 교회 내 교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고,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예배와 교제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도들 스스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그분께 속하여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 간절한 믿음을 사모하게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 코로나 상황이 여름이 되어야 진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와 한계를 알리며, 현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창규 선교사(러시아)

가정사역공동체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

‘가정예배’와 ‘부부QT나눔’이 가져온 변화

2017년 가을, 젊은부부학교를 수료하고 그동안 꿈꿔온 가정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9살 아이의 QT교재를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 초기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 얻은 귀한 아이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던 남편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럽고 감사했다. 다만 당시에는 아이 중심의 예배이다 보니 부부간의 나눔은 전혀 없이 아이의 QT를 점검하고 남편은 참관인처럼 앉아있는 형식적인 시간을 보내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가정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다시 일어났다. 마침 아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 덕에 예배에 대한 소망은 함께 QT나눔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커졌다. 때마침 가정사역공동체에서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부부QT나눔’을 독려하고 있었기에 부부의 회복과 가정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가정예배와 부부QT나눔을 시작했다.

우리 가족의 가정예배는 매일 가위바위보로 정해지는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찬양, QT나눔, 감사한 일과 기도제목 나눔, 주기도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다.



장용준 김유경 성도 부부는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무리한다.

이전까지 우리 부부는 일상적인 대화 외에 신앙에 관한 나눔을 할 기회가 없었다. 간혹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먼저 믿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려는데, 남편에게는 신앙을 중용하는 압박과 잔소리를 들렸는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깊은 QT나눔을 통해 부부가 평소 알지 못했던 서로의 속마음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되었다. 또한 매일 감사한 일을 나눠야 하기에 힘들고 지칠 때도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그 힘든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나오곤 한다.

아이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엄마에게 QT검사를 받고 혼나는 시간이었던 가정예배가 이제는 즐겁고 기다려진다고 고백했다. 아이는 어느새 아무지고 능숙하게 가정예배를

인도하곤 한다.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깊은 나눔을 하는 아이를 보며 아이의 신앙이 성장함을 감사하게 된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한다. 남편은 아내인 나에게, 나는 남편에게 서로의 손을 잡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어서 남편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한다. 마음이 상했거나 언쟁이 있는 상황에도 늘 축복기도로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가족에게 가정예배와 부부QT나눔은 어느새 형식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채워지고 있다.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도 아이들과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되기를 소망한다. 단순한 예배를 넘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값진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 장용준, 김유경 성도 부부(가정사역공동체)

공감소비운동 그 아름다운 현장

사회선교본부-프레밀리

서울시 성북구 미아역 인근에 매주 토요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모이는 주택이 있다. 십여 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뛰어놀며 흘린 땀으로 머리가 축축해질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이곳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천국 ‘프레밀리’다. 지난 16일 프레밀리를 찾았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15명이 함께 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딱지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보드게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서현 학생(11살)은 “이곳에서는 친구들과 아주 간단한 놀이만 해도 너무 재미있다”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다.

프레밀리에서는 위캔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성경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모이지 못했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위캔스쿨이 열리기만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 노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알차고 신나고 흥미로운 과정이다.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성경공부를 시작한다는 정종원 목사의 말 한 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자리에 앉았다.

프레밀리 위캔스쿨은 정종원 목사와 김성은 사모가 섬기고 있다. 오전에는 성경공부와 찬양, 율동을 배우고 오후에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진다. 그 좋은 프레밀리 위캔스쿨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다. 아이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다. 매주 무시하기 힘든 식비와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

맞추는 일이 쉽지 않다. 바로 이곳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가 공감소비운동 일환으로 1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 그 덕분에 프레밀리 위캔스쿨 아이들이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었다. 자장면 한 그릇을 똑딱 해치운 폴(14세)은 “아침밥을 안 먹고 왔는데 자장면과 탕수육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프레밀리 위캔스쿨은 토요일 오후 4시에 끝나는데 아이 몇몇은 웅기종기 모여 놀다가 하루 자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간다. 그러다보니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아침, 점심까지 네 끼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식비가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어서 정 목사는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지원해주신 온누리상품권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식사와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정말 잘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프레밀리, 다문화가정의 친구이자 가족

프레밀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의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정종원 목사와 김성은 사모는 10여 년 전부터 한부모 다문화가정, 미등록 다문화가정을 찾아다니며 섬기다 2017년부터 사단법인 프레밀리를 시

오랜만에 자장면 탕수육 파티하던 날



사회선교본부에서 지원한 온누리상품권은 프레밀리 위캔스쿨 아이들의 식비로 사용된다.

작했다. 보통의 다문화가정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이혼이나 사별로 관계가 단절된 다문화-한부모가정과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 미혼모외국인, 미등록아동을 돕는다. 프레밀리에 오는 다문화가정에게는 지원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이다. 정종원 목사 부부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

프레밀리에서는 한부모 다문화가정과 미등록 다문화가정이 매월 한 번 다함께 모여 드리는 전체 예배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위캔스쿨, 주일예배, 다문화가정의 자립을 돕

는 더누림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사역은 많은데 섬기는 손길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성은 사모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아이들의 식사준비, 특강, 학업, 레크리에이션을 섬겨 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아동은 국가 보조금으로 도울 수 없기에 프레밀리는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프레밀리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070-7655-1177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84-791004

(사단법인프레밀리)

요셉공동체-길벗교회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양재 도곡시장에 모였다. 그 청년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선물을 사러 가는 표정이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도곡시장에 위치한 작은 마트에서 라면과 커피 등을 카트에 담았다. 길벗교회에 전달할 선물이다. 길벗교회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작은 지하 교회다. 교역자의 사역비조차 제대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는 교회다. 길벗교회는 김희성 교수(서울신학대학교)가 대학교 수 시절부터 해오던 노숙인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개척했다. ‘예수가족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서울역으로 나가 노숙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안에서 노숙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현재 길벗교회는 김희성 교수가 은퇴하고 허한희 전도사(길벗교회 담임전도사)가 그 사역을 이어 가고 있다. 허한희 전도사에게는 태어난 지 4개월 된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교회의 어려운 재정 탓에 사레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아이를 키우고 생활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허한희 전

도사는 여러 가지 부업을 병행하며 사역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비를 충당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길벗교회의 모든 사역은 허한희 전도사의 자비량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나마 들어오던 후원의 발길이 끊어졌다. 길벗교회를 꾸준히 후원하던 중소기업 사장님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후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와 후원 중단 등으로 길벗교회의 모든 사역이 중단될 상황이 놓였었다. 허한희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된 요셉공동체가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길벗교회에 도움이 손길을 내밀었다.

요셉공동체가 길벗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노숙인 전도를 위한 용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라면 5박스, 컵라면 5박스, 믹스커피 10박스, 마스크 100장을 구입해서 길벗교회에 전달했다. 길벗교회가 노숙인 전도를 할 동안 이어갈 수 있는 양이다. 허한희 전도사가 온누리교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후원이 끊기

“더 어렵고 약한 이웃 섬기겠습니다”



요셉공동체가 마트에서 길벗교회에 전달할 용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

면서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사역을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자신의 삶을 챙기기도 바쁜 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돕는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도움으로 더 어렵고 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임규형 형제(요셉공동체 사역MC)는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하면서 온 누리로 퍼져나가

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다고 고백했다.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이 설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길벗교회를 섬기고, 길벗교회는 더 어려운 노숙인들을 섬기며 점점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온 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는 크리스천을 위하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남 탓하지 않으셨다!

남 탓해서는 문제해결 되지 않고 갈등만 더 쌓일 뿐
억울한 순간조차 회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크리스천은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거듭남을 경험하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본지에서는 ‘거듭나는 크리스천을 위하여’를 주제로 크리스천이 반드시 버려야 할 감정과 습성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주제는 ‘남 탓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구한다”(논어),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5).

자기 허물이 큰 줄은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탓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면 일단 누군가에게 잘못을 돌리는 본능이 있다. 부인은 남편을 탓하고, 남편은 부인을 탓하고, 자녀는 부모를 탓하고, 부모는 자녀를 탓한다. 상사는 부하직원을 탓하고, 부하직원은 상사를 탓한다. 노인은 청년들을 탓하고, 청년들은 노인을 탓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탓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탓한다. 현 정부는 전(前) 정부를,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탓하고 비난하기 일쑤다.

교회와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 일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불만을 표했다. 왜 클럽은 가만두고, 교회만 머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교회나 크리스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억울하다고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해결될 일도 결코 아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려울수록 강해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방역 및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임해야 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따라야 한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남 탓하는 습성을 가졌다

남 탓하는 습성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비롯됐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비켜가지 어렵다는 말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뒤 자신들의 육체가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숨었다.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누가 네가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창 3:11)고 묻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창 3:12)라며 하와를 탓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자 하와는 뱀 탓을 했다(창 3:14).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땅의 저주와 함께 에덴동산에서 쫓아내는 벌을 내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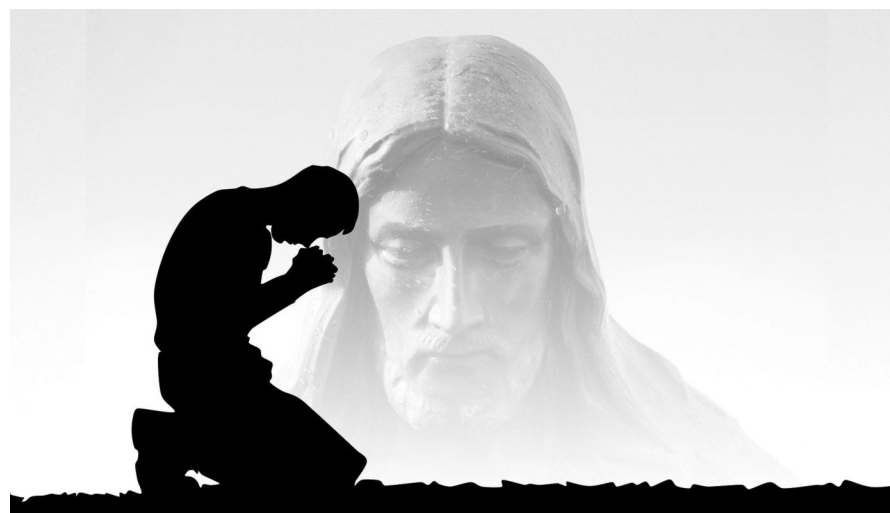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도 남 탓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출애굽 이후 가데스에서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생활을 하게 되었다. 40년이 지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같은 장소로 오게 된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40년 전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시 임할 것을 직감했다. 오랜 시역으로 지친 모세는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회막에 가서 었드린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평을 쏟아낸 백성들에게 분노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민수기 20:1-13).

모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백성 탓을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시라...”(신 1:37),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신 3:26),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노하시...”(신 4:21).

모세의 남 탓은 그 결과가 참으로 컸다.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묻혔다. 그의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신 34:4-6).

남 탓해서 망한 왕도 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다. 아합 왕 시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이 가뭄의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아합 왕이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왕상 18:17)고 했다. 기근이 엘리야 탓이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남 탓하는 습성을 버려야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크리스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

왕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탓함으로써 자기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남 탓만 하던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았다(왕상 22:38).

남 탓하지 않는 크리스천 되려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라!”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남 탓 했고,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도 남 탓을 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기보다 남 탓부터 하는 게 습성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 탓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산책하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다윗은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녀를 궁궐로 들여 동침했다. 몇 주 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였다. 그런데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에서 전투중인데 자기만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없다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죽게 하라”(삼하 11:15)는 편지를 써서 전쟁터로 보냈고, 결국 우리아가 전사하고 만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밋세바를 아내로 삼는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윗의 소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짓이었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셨다.

다행히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삼하 12:13)라며 금식하며 었드려 밤을 지새우며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다윗을 용서해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도리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마 26:24)며 측은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눅 23:34).

미국 조직 전문가 존 밀러가 쓴 책 《비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는 베스트셀러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갈등의 원인을 덮어씌우는 것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

남 탓만 해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도리어 갈등만 더 쌓일 뿐이다. 일이 되게 하려면 남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발전한다. 내 탓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고, 성장하게 된다. 어느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다.

“그렇게 남 탓 해봐야 세상 바뀌는 거 아무 것도 없어.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 그만하고 네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을 때도 있다. 분명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그 억울한 순간조차 다윗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 꼭 기억하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 탓을 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

전문가 기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남 탓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미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셨던 예수님의 첫 물음이 뜻밖이다.

예수님이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는가?”라고 묻자, 병자

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라고 답했다. 반복된 실패 앞에 그의 모습은 우울하고,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을 억울해하는 표정이다. 만약 당신이 38년 된 병자였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을까?

VUCA의 시대, 꼭 필요한 덕목

현대 사회를 일컫는 다양한 표현 중에 변하고(Volatility), 불확실해지며(Uncertainty), 복잡하고(Complexity), 모호한(Ambiguity)의 의미를 넣은 ‘VUCA’가 있다. 요약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이르는 말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요즘 시대를 표현한다. 해답을 향한 획일화된 풀이과정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풀이과정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연막탄이 터지고, 어디서 적이나 울지 모르는 전쟁터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에 휩싸일 때가 있다. 당신이 전쟁터의 분대장이라면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20년 간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셀에서 복무했고, 지휘관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라마디에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 훈장까지 받은 조코 윌링크는 레이프 바빈과 함께 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돕는다. 그의 저서 <네이비셀 승리의 기술>에서 그는 좋은 리더와 좋지 않은 리더의 차이를 그가 만났던 분대장들의 예로 설명한다.

한 분대장은 입만 열면 늘 경험이 미숙한 분대원, 분명하지 않은 작전 시나리오, 구식 장비 등을 탓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을 제외한 외부에서 찾았다. 또 다른 분대장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전투 후 피드백을 통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는 없었는지 자기반성을 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두 분대의 성과 차이는 어떠한가? 전자는 좋지 않은 성적을 얻고 임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팀의 내분으로 이어져 팀 해체라는

“좋은 일의 이유를 자신에게서만 찾으면
좋지 않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만든다.
평소 하나님과 이웃의 도움을 인정하고 있는지
삶을 점검해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반면 책임지는 분대장이 있는 분대는 남들보다 항상 앞서갈 수밖에 없었는데 책의 저자는 분대원들이 그런 리더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그 결과 그 분대는 최고의 성적을 내는 분대로 성장한다.

“좋은 리더는 실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오히려 나쁜(주인의식)을 갖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네이비셀 부대원들은 이런 리더를 존경합니다.”

군대와 같은 위계가 있는 조직의 형태이든 그렇지 않은 수평 문화 조직이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 혹은 팔로어가 되어 위나 아래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의 멤버로 어느 정도 주인의식을 가졌는지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문제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책임의 일부를 느끼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마치 외부인이 된 것처럼 남의 일을 대하듯 문제의 책임을 전부 외부로 돌리는 구성원도 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책임전가를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고의적으로 남에게 미룸’으로 정의한다. 자신의 책임을 마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양 타인 내지는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책임전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투사(projection/投射)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투사는 자신의 실수나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 그 대상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기방어기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자녀의 다툼에서 잘 나타난다. 엄마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어린남매에게 싸움의 이유를 물었다. 남매는 억울한 듯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 아이들은 상대방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각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반복된다면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책임전가 습관 버리는 방법

그렇다면 책임을 전적으로 외부에 전가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할까?

첫째, 만약 팀에서 함께하는 공동작업 중에 이런 경향성이 보인다면 팀의 미션과 그에 따른 역할을 재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팀이

든 개인이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를 사명 혹은 미션(mission)이라고 표현한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미션이 흐릿해지는 순간,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보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갇히게 된다. 수단과 방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멤버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실현한 네 명의 친구가 나온다. 친구의 중풍병이 낫기를 원했던 친구들은 친구의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이 계신다는 마을로 향한다. 마을의 한 작은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사람이 많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들은 신속하게 자봉에 올라 기와를 벗겨 내고 친구를 높인 상태로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렸다. 이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인가?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전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친구의 병이 나을 수 있다”였다. 그리고 협력하여 실행된 미션은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눅 5:17-26). 미션을 완벽하게 완수한 것이다. 만약 네 명의 친구 중에서 자신들 앞에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아픈 친구가 거동이 힘든 중풍병이라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둘째,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에 자신은 없고, 주변 사람이 그 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책임전가의 상황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마 7:3).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해 보는 영적습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말

씀하신다. 그런데 남 탓만 하다 보면 그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 그 일이 100% 외부의 원인에 따른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자신의 반응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반응했는가?’, ‘주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도하신다.

‘남 탓’이 아니라 ‘남 덕분’으로!

셋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남 탓’이 아니라 긍정적 반응인 ‘남 덕분’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부정적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평소 일상의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만 찾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대로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게 만든다. 따라서 평소 일상의 관점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도움을 인정하고 있는지 삶을 점검해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예수님은 외부 탓을 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 순간 그동안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그것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안식일에 선물로 주셨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동 자체가 유대인에게 비난거리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분의 사명대로 행하신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는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를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눅 23:34)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된다.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신 한 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

공감소비운동 5월 31일까지 이어져



길벗교회에 전달할 노숙자 전도용품 구매하는 요셉공동체 청년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감소비운동은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 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관련기사 7면).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에는 총

342개 다락방이 참여하고 있다. 서빙고 한강공동체 믿음다락방은 동두천 임마누엘선교교회에 생필품과 전도용품을, 요셉공동체는 길벗교회에 노숙자 전도용품을, 사회선교 본부는 프래밀리(다문화가정 후원 단체)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배기석 집사(서빙고 한강공동체 믿음다락방)는 “진짜 도움이 필요

한 이웃들을 살피고 도우며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고백했다.

공감소비운동은 5월 31일(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각 다락방장은 6월 14일까지 사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사회선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계속

CGNTV 및 온누리교회 유튜브, 양재 현주차장

온누리교회가 온라인 예배 및 드라이브인 예배를 당분간 지속한다.

온라인 예배는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토요주일에 배 1~3부, 일요주일에 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6시 30분, 토요일 없음)가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대학청년(홀리스타 포함), 외국어예배(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사랑부(장애인 예배) 주일예배 또한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88.5MHz)에 맞춰 설교를 듣는 드라

이브인 예배는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에 드린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려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해야 한다. 바코드를 미리 발급받고 신청하면 된다. 예배 예약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고, 예배당 차량 250대를 선착순 마감한다.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 OBC 성경공부,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진 123 등도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상담센터 온라인 상담 실시

화상 또는 전화상담, 구글폼에서 상담신청서 작성

온누리상담센터가 한시적으로 화상 및 전화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리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구글폼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이메일, 상담 경험, 원하는

상담 주제, 가능 요일, 방법(전화, 화상) 등을 기입해야 한다.

온라인 상담은 ZOOM(화상채팅 서비스)을 활용한다. ZOOM 사용이 어려운 성도들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온라인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793-2997

양재 02-570-7536

구글폼

서빙고: <https://forms.gle/xEYaDpwSjRoEnbXNA>
양재: <https://forms.gle/zVy8FH6WM6fGBQVn7>

라비 재커라이어스 박사 암투병 중 소천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 박사가 소천했다.

암 투병을 하던 라비 재커라이어스 박사는 지난 5월 19일 7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비 재커라이어스 박사는 C.S. 루이스 이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 2016년과 2019년에는 온누리교회를 방문해서 그의 영성을 나누기도 했다.

청년들의 나라 위한 온라인 기도회

여호수아, 길, 하늘, J4U공동체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

여호수아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 중보기도회를, 길공동체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온라인 기도회를, 하늘대학부는 매일 오후 11시 온라인 라이브 기도

회를 이어가고 있다. J4U청년부는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순원들과 함께하는 성경공부시간 ‘JTC’를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 프로젝트 ‘Plan C 기도회’를 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예배팀 봉사자 모집

Pole2대학부, 허브대학부, J4U청년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Pole2대학부, 허브대학부, J4U청년부) 예배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Pole2대학부 미디어팀에서는 자막, 영상 봉사자를 모집한다. 주일예배를 꾸준하고 성실히 섬길 수 있는 성도라면 초보자도 가능하다.

허브대학부 예배팀에서는 영상팀(형제), 워십팀, 챔버팀(첼로, 콘트라

베이스), 국악팀, 보컬을 모집한다. J4U청년부 예배팀에서는 음향, 영상(카메라, 기획), 챔버(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찬양(건반), 조명, 주보(표지, 기획)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Pole2대학부 010-5914-8591

허브대학부 010-9956-6752

J4U청년부 010-5312-4333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온누리교회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은행, 회계 업무에 능통하거나 기업재무관리 경력이 있는 성도가 대상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양간증문 포함)를 재정국 신동은 팀장에게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9(shine8902@onnuri.org)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사사기 집중반’ 세미나가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의외성(웃니엘과 에훗)’,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삼손)’ 등을 주제로 전성민 교수(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 원장)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6월 4일까지 신청하면 2만 원 할인된다.

강의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고, 주차별 게시일로부터 2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내선1번)

“한결같은 사랑 감사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탈북민예배 ‘행복한 하나예배’가 지난주 스승의 주일(17일)을 맞아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탈북민 지체들이 행복한 하나예배 스태프들에게 감사편지를 남기고 장미꽃을 선물했다. 행복한 하나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남양주 온누리교회 4층 온유희에서 예배드린다. 문의: 031-565-9686

행복한 하나예배 스태프들께

행복한 하나예배가 시작 된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승이 라면 스승이고, 부모라면 부모이고, 또 이웃이나 친척 같은 스태프들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는 저희는 스태프들의 사랑과 인내와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생활이 바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저희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와 주셨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와 축복을 더해주시고, 슬픈 일에는 위로와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지난 모든 일상에 울고 웃으며 함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밥과 반찬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까봐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시는 권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소식이 뜸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물으시며 밥 한 끼 하자며 전화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항상 저희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희의 손을 꼭 잡고 통일이 되는 그날 저희와 함께 북한 땅을 밟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하나예배를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팀장님과 순장님들, 모든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강설경 자매(남양주 행복한 하나예배)

특별기고 코로나 이후 선교를 생각하다

지금 위기는 분명 기회로 바뀔 것이다!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에 달렸다



한충희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본부장)

코로나19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속 선교사 26유닛 56명이 귀국했는데,

이 규모의 사역지 일시철수는 30여 년 온누리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만큼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코로나19는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크고 깊은 충격을 줄 것이다.

코로나가 가져다 줄 선교환경의 변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우리는 영적 중간상태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자리는 우상이 차지한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던 대상이 코로나 19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고 했다.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죄와 심판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통적으로 선진 민주국가이면서 모든 면에서 세계의 기준을 선도했던 서구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특히 세계 패권을 노리는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의 책임을 두고 대립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세계 선교 환경에도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편에 서도록 강요당할 수도 있고,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외국인 대우는 선교사의 활동에도 매우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이슬람에 미칠 영향을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 그러나 모스크 모임과 단체기도 및 금슬사역이 어렵고, 금식 등 라마단 규율이 약화되고, 메카 방문도 어려워지는 등 이슬람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슬람의 변화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온라인 예배 문화가 어렵고 현장성과 행동성이 강한 그들의 신앙활동 특성상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진행되면 내면에서 여러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아랍의 봄’(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아랍 세계로 번진 민주화 운동과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으로 이슬람 사회가 영향을 받

았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또 다른 충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선교의 핵심 사역은 전도와 제자양육, 교회 개척 및 재생산과 이양이다. 코로나 사태는 타 문화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선교의 본질을 다시 알게 한다. 교회 개척이 건물과 빌딩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공동체를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눈의 비늘을 벗기듯 더 선명하고 분명히 선교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코로나의 화두는 거리두기(distance)이다. 서로 간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서로를 떨어뜨려 놓으려 한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따른 영적인 갈급함은 절대자와 창조주를 찾게 한다. 결국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게 된다. 온라인에서 나누는 실시간 대화는 실제

으나, 같은 시간에 제한 없는 인원이 접속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소 선교사가 일주일에 1~2회 성도를 접촉한다면 온라인 활동은 일주일에 4~5번 접촉도 가능하다. 따라서 선교지 성도 케어와 영상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섭외가 어려운 유명 설교자나 복음전도자를 초빙할 수도 있고, 찬양사역자의 경우 다른 지역 예배에도 참여하는 글로벌 옴니버스 예배도 가능하다. 국내에서 전문 양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선교지 제자양육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예배 확대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소규모 인원의 오프라인 모임의 중요함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상당 국가가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지만 10명 이내 모임에는 관대하므로 온오프라인 예배나 모임을 적절히 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오프라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코로나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커진다. 인도적 지원은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이번에 50여 유닛을 통해 선교현장 지역주민에게 생필품과 식료품, 방역 도구 등을 지원해서 호응을 얻었다. 현지 교회에 헌금이 줄고 있는데 이는 공예배 중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실직과 사업장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른 것이기에 장기화될 경우 우려스럽다.

여섯째, 팀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행동의 제약으로 인해 백업해줄 수 있는 팀 내 다른 사역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팀원 간 대화와 소통으로 공동대처 및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 TIM 본부도 이를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수년간 추진해온 전략팀(Strategic Team)의 개념과 기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여름 아웃리치가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선교적 활동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내 주요 선교 현장 탐방을 통한 한국교회사 이해, 현지 선교사와 담임공동체 간 화상기도 모임, 일시귀국 선교사의 선교현장 소개 및 온오프라인 강의와 토론,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지역, 난민선교 등의 영상강의(현지 선교사나 국내 강사) 제공 등이 가능할 수 있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우리하기에 달렸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령의 깨달음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겹에 절반 분량의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 물이 반이나 찼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다(롬 12:2).

코로나는 거품을 빼고 믿음의 본질, 기본(Basic)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힌다.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과 복음이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휘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막 16:15). 지금 위기는 분명 기회로 바뀔 것이다.

“코로나는 믿음의 본질, 기본(Basic)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힌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과 복음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로는 멀리하기이지만 사이버상에서는 곁에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가까이하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선교의 모습과 사명 7가지

첫째, 대규모 예배나 모임, 집회보다는 소규모 예배와 모임으로 사역이 전환될 것이다. 이는 코로나 이후 선교 현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예배는 소규모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 일대일제자양육, 순모임, 셀 등이 활발해지고, 큐티나눔 또한 소규모로 이루어져 소그룹사역이 커질 것이다. 전도도 대규모 집회보다는 소규모 맞춤형 전도가 주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 양육의 핵심 DNA인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 순예배가 선교지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므로 가정 단위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온라인 예배, 소셜미디어를 통한 목양관리(큐티나눔, 성경읽기 점검, 일대일 상담, 전화심방 등), 온라인 다중대화 어플(cisco, google meet, zoom 등)을 이용한 강의, 기도모임, 설교, 순예배 등이 일상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교제와 나눔의 감성적 교감이나 은혜는 약해지는 단점이 있

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칭하는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도 온라인으로 접촉(go and outreach)이 가능해졌기에 선교적 접근과 도달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복음전파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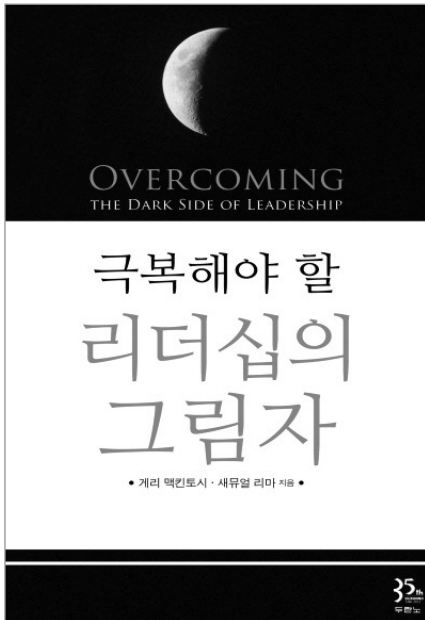
셋째, 포스트 코로나의 또 다른 강조점은 제자훈련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를 이양 받게 될 리더십에 대한 집중적인 제자양육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제자양육은 재생산과 이양 문제로 연결된다. 이양 시기와 조건은 각 사역지 상황에 맞춰 다뤄져야 하는데, 작근이 안 된 상황에서 조급한 이양은 교회를 흔들게 할 수 있고, 그 반대는 자립의지와 주인의식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역이 매우 중요해진다. 중요한 전략대화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선교동원과 세미나, 리소스와 콘텐츠 공유를 통해 시너지 높일 수 있다.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도 유용한 선교협력이 될 수 있고, 온누리 해외비전교회와 파송 선교사들과의 협력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난민 및 이주민 사역의 경우 중동, 유럽, 페르시아, 터키,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과 민족, 현지인 교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융합선교를 통해 협력의



책 읽어주는 목사

“다른 누구보다 자신에게 적용하라”



리더십의 그림자
게리 맥킨토시 저 | 두란노 | 12,000원

작년 가을, 목사안수를 앞두고 안수대상자들을 교육하는 노회에 참석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목회자는 장교와 같습니다. 공동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

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리더’라는 단어와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랜 시간 책장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소개 할 <리더십의 그림자>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올바르게 일을 했던 실패한 리더들이 있었다.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실패를 경험한 리더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역설이 존재하는데 바로 불안, 열등감, 인정받으려는 욕구다. 이것은 리더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리더와 공동체의 파멸을 촉구하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것을 ‘그림자’로 정의한다. 리더의 그림자, 리더십의 그림자.

그림자의 원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한 사람이 성장할 때 그림자도 함께 자란다는 점이다. 대상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가 커지기 마련이다. 리더로 성장하며 모든 욕구가 채워진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든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 비어버린 욕구의 상실 구간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그 노력의 모습에 따라 건강한 리더가 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은 리더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다룬다면 욕구충족의 과정이 건전해지고 공동체에 이로운 영향을 주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고 숨긴다면 욕구불만은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다. 결국 리더는 자신의 그림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일을 하는 건강한 리더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실패한 리더가 되기도 한다.

저자는 그림자를 극복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극복하는 첫 단계는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믿는 리더들을 만난다.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자신의 그림자를 극복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나의 그림자가 어떠한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자를 인정했다면 자신의 과거를 탐색해야 한다. 모든 그림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아픈 기억이나 실패의 기억, 상처를 탐색하며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기대치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기대 혹은 성취에 의해 좌

우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로 귀한 것이다. 존재가 아니라 성과에 좌우되는 모습은 그림자를 가리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정을 넘어서었다면 영적 훈련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기도과 말씀,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과정 안에 머물며 예수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이다. 한 명의 목회자가 어떤 리더로 있느냐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결정된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에게 적용하라.”

설교한 것과 가르친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있다. 오늘도 나는 이 책을 떠올리며 나에게 적용하고, 그림자를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올바르게 행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해본다.



김재승 목사
(양재 파워웨이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분명 틈새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전도의 틈새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미처 살피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들을 살피는 것도 틈새전도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 전 퇴근길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진료를 받으러 온 50대 여자 환자 분과 함께 온 딸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음을 들었고, 마스크로 얼굴의 반절을 가리고 있던 환자는 안경 속으로 자꾸 손을 집어넣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함이었다. 엄마와 딸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 주변 교회에 가기로 약속하고 진료를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멈췄다. 온누리전도학교도 전반기 모든 훈련이 중단됐다. 성도들이 전도요청을 하면 현장에 달려가고, 주일과 평일에 노방에서 전도하던

전도콜센터 사역도 멈춘 상태다. 물론 병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료를 하고, 환자들과의 거리두기로 인해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늘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던 것이 내 삶의 정말 큰 기쁨이었기에 진료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마치 교회와 병원, 어디에서든지 전도의 문이 꽂 막힌 것 같았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줄었다. 시간에 쫓기며 진료하던 과거와 달리 개인진료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여유를 갖고 환자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자의 내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다. 그제야 환자들의 지치고 아픈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들을 위해 책상 한켠에 놓인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집어 들었다. 환자들에게 3분의 시간을 허락 받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의 반응을 보며 5분 넘게 전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찾아온 모녀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듣는 환자들은 내가 말을 잘 해서, 내가 친절해서, 내가 뛰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을 뿐이다. 모든 상황이 막혀 버린 것 같았던 그때도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는 이들을 만나주셨다. 영혼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의 문이 막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 예수님의 사랑도, 복음도 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틈새시장’이라는 말이 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빛이 들어오는 틈새를 발견할 수 있다. 환자가 줄었지만 늘어난 개인진료시간을 통해 환자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내가 직접 나서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틈새전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인과 가족들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미처 살피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들이 틈새일지 모른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틈새를 보여주시고, 별려주실 때를 기다리며 전도자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전도자의 자세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구원에 목마른 사람처럼 전도의 틈새를 바라며 집중해야 한다.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는 동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교만을 늘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통로이자 복음전파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과 인내로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탈육신 시대의 성육신적 교회

율법주의적이고, 탈육신화된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교회는 쇠퇴할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휩쓸려 갈 것입니다. 변화에 휩쓸려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 옷을 고치려고 새 옷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새 옷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세상의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본 회퍼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교회는 일반적인 인간생활의 문제와 짐을 함께 나누어지되 지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돕고 봉사함으로 져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셋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37~39절).

당시 유대 사회는 물이 귀하고, 포도주를 약으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는 드럼통 같은 곳에 포도를 가득 넣은 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이 나오는 곳에 가족 부대를 두면 가족 부대에 들어가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야 포도주로 변합니다. 가스가 나옵니다. 팽창합니다. 그래서 가족 부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늘어났다 줄었다 한 가족 부대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낡은 가족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게 되면 더 이상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터지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새 포도주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아니라면 옛 가족 부대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새 가족 부대가 필요한 것은 새 포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새 포도주가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는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교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사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깨달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하 무덤에서 모였을까요?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도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입니다.

탈육신 시대에 비하면 중심의 사회가 되었을지라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며 어떤 모습으로라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성령의 교통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내부의 연약함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물이 많다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을수록 배가 잘 뜹니다. 그러나 내부에 물이 스며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배의 균형을 잡는 무게가 사라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만 이 시대를 극복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비록 작은 선물이었지만, 더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몽골도 올해 2월 말부터 철도와 항공 등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고, 마스크 없이 은행, 시장 등 공공장소 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몽골 ECC 관련 기관 및 TIM(두란노해외선

교회)관련 교회 현지인 지도자들이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요청해서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80km 떨어진 몽골머트 지역에 위치한 417번 교도소에서 재소자 160명에게 나눠줄 생활용품을 요청해서 지원했습니다. 재소자 50여 명은 영치금을 넣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이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700km 떨어진 브리야트족이 사는 바잉을 지역 교회 을찌바이르 전도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마스크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마스크 100장을 구입해서 보냈고, 을찌바이르 전도사는 군청, 국경관리부, 은행 등에도 마스크를 나눠 주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동쪽 700km 떨어진 초이발산에서는

몽골 ECC와 그 지역 가장 큰 병원(260병상)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입원환자들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알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에게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사진과 기사를 작성해서 저희 단체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었지만 자신들의 삶에 긴급한 필요를 채워준 것에 더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 강바나바, 김조세핀 선교사(몽골)

‘나눔과 섬김’ 배우고 가르치는 기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알마티도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내 이동제한령은 해제 되었지만, 외곽은 아직도 봉쇄된 상태이고, 종교 활동도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구르 교회 성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 어려움이 더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구르 교회에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 주셔서 알마티에 있는 1개 교회와 지방에 있는 5개 교회에 생필품과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위구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나눔과 섬김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이번 섬김을 계기로 성도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가르치기 위하여 리더십들이 열심히 기도

하며 준비한다고 합니다.

“위구르를 사랑하는 한국의 어떤 교회가 귀한 헌금을 보내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언제까지 받기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자!”

이 교회 모든 성도가 1천탕계(한화 3,000원 정도)씩이라도 모아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조금 나은 성도들은 본인들의 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은 “나눔과 섬김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

을 못했는데,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위구르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통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동역자님들에게 위구르의 작은 소식이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구르 성도들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김아미 선교사(알마티)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조선 교회의 핵심가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했거나 아주 많이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여성운동과 계몽운동, 상업장려운동과 독립운동 등을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조선의 선교 역사를 분명히 직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조선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희생하고 헌신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왼쪽부터 600억 재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한 우당 이회영 선생, 대장장이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 처녀 독립운동가 김경희 열사(가운데).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교육, 의료, 한글 보급, 농촌 계몽운동, 의료보험, 상업장려운동, 여성인권운동, 아동인권운동 등 기독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 조선의 근대화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웃, 나라를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발달했다.

조선 교회와 성도들의 나라 사랑

1910년, 조선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조선 교회와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이 어느덧 장성해 있었다. 그들은 교회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을 조선 곳곳에서 실천했다. 조선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사람 모두가 나라의 독립을 소망하고, 실제 독립을 위해 힘썼지만 조선 교회 성도들의 열정은 그 중 으뜸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조선의 인구는 약 1천 6백만 명, 1945년 인구는 약 2천 5백만 명이였다. 같은 시기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은 1910년 17만 명, 1945년 약 80만 명이였다.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의 1~3퍼센트 정도가 조선을 유린하는데 앞장섰다고 추산되는데 매국노, 친일파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소수에 의한 일제강점기 유지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19년 3.1운동에서 발표된 기미독립선언문

에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계 인사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가 1.3% 정도였다고 하니 조선 교회와 성도들의 나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부자, 대장장이, 여성의 독립운동

친일파들이 민족을 쥐어짜며 부를 축적할 때, 조선 교회의 부자들은 전 재산을 헌납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회영 선생이다. 이회영 선생의 집안은 조선대대로 여섯 명의 정승을 배출한 이름난 사대부였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여섯 명의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만주로 떠났다. 그때 명동 인근의 재산을 전부 헐값에 처분해서 40만원(지금 가치로 약 600억 원)을 마련했다. 본래 값을 받았다면 2조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만주로 망명한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은 자력독립을 위해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등을 설립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이바지한다. 이회영 선생 일가의 재산으로 운영된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독립군을 약 3천 5백명 배출한다. 그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이회영 선생의 여섯 형제 중에서 살아서 조선 땅을 밟은 이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 단 한 명뿐이었다.

이회영 선생 독립운동의 뿌리에 기독교 신앙이 있다. 진덕기 목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던 상동교회에 출석하며 헤이그 특사, 신민회 조직 등에 관여했다.

이회영의 손자 이종찬 의원(전 국회의원)은 “신흥무관학교의 신(新)자는 신민회의 앞 글자와 조국 광복 때까지 크게 흥하라는 흥(興)자를 합해 이름을 지은 것”이라며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정을 보면 그 뿌리가 상동교회에 서부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낮에는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하고, 밤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신앙의 선배도 있다.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항일무장투쟁의 발판을 마련한 김상옥 의사다. 김상옥 의사는 16세 동대문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동대문교회 야학에서 공부하며 독립운동에 눈을 떴다.

청년이 된 김상옥 의사는 창신동에 영덕철물점을 차려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배움에 목말랐던 그는 야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김상옥 의사와 의열단 동료들은 1923년 조선총독 사이트 마코토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김상옥 의사는 1월 17일 1천여 명의 일제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이다 서거했다.

3.1만세운동의 숨은 주역이라고 평가받는 기독교 여성들도 많다. 비밀결사회를 운영하면서 3.1만세운동을 지원한 김경희 열사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일제 고문 후유증으로 32세에

요절해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픈 신앙의 선배다.

김경희 열사는 기독교 교육기관이었던 예수교 소학교와 송의여학교에서 수학하며 신앙을 키웠다. 송의여학교를 졸업하고는 송의여학교, 목포 정의여학교, 송현여학교 등지에서 교사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1911년 신민회를 체포한 ‘105인 사건’ 이후 독립운동에 눈을 뗐다고 알려졌다.

김경희 열사는 송의여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송죽형제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돼 전국적인 비밀조직을 이끌었다. 송의여학교 졸업생들은 전국 교회와 학교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은밀하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김경희 열사와 송죽형제회 일원들은 원산, 부산, 전주, 서울 등지의 교회와 학교에서 민족의식을 심어갔다. 김경희 열사는 수업 중에 “이등박문을 폐살한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건립하자”는 발언을 했다가 일제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고 폐질환을 얻었다. 김경희 열사와 동지들은 평양의 3.1운동을 계획하고 이끌었고, 또 다른 여성중심의 독립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경희 열사는 1919년 9월 폐질환으로 소천했다.

신앙 선배들의 나라 사랑
그 숭고한 교훈을 이어받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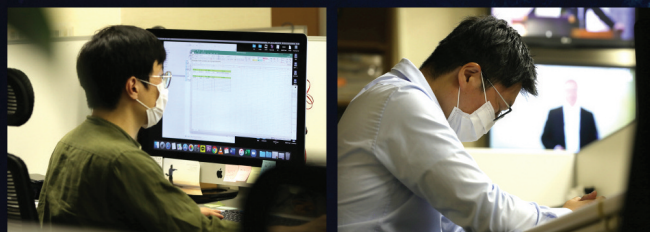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지면에 다 담지 못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립을 위해 피땀 흘린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만약 조선 교회에 한 가지 계명을 더한다면 그 계명은 바로 나라 사랑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와 헌신을 잃어버렸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선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몸소 보여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교훈이기 때문이다.

CGNTV

“선교지를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춰도
CGNTV 해외지사는 복음을 들고 전진합니다.
CGNTV 해외지사를 응원해주세요.

일본 CGNTV 미주 CGNTV
대만 CGNTV 태국 CGNTV 홍콩 CGNTV
인도네시아 CGNTV



코로나19 확산에도 헌신과 기도로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일본지사 직원들

“기도와 후원은 CGNTV 해외지사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재)온누리선교재단

후원문의: 02-796-2243